

建議書

일 자 : 2001. 10. 19.

수 신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참 조 : 인적자원정책국장

제 목 : 국립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의서 제출

국립대학도서관 운영에 관한 건의서

대학교육환경은 국제화·개방화의 물결 속에 대학은 자율화·전문화를 지향하고,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서관 정보화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2000.2.1 국무회의)에 따라 2002년까지 도서관 정보화를 위한 디지털 환경조성과 핵심적인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충에 주력하도록 도서관 정보화 추진계획이 이미 정부안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은 정보처리기술과 정보제공기능을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새로운 정보요구에 대응하고,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검색서비스 및 디지털정보의 제공으로 대학교육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지식기반사회의 핵심 부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급증하는 정보를 종합적인 형태의 Total Solution, 즉 지식관리시스템으로 구축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업무에 따른 체계적인 충원과 불균형적인 직급별 현원으로 대학도서관은 제 기능의 수행이 불가능하고, 담당자는 사기가 저하된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협의회는 제52차 및 제53차 총회에서 아래와 같이 시급한 현안으로 의결하였고, 이를 건의하오니 국공립대학도서관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서직 직급별 정원 조정

대학도서관은 대학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장서 수와 이용자 수가 증가되었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직원 역시 증원되었지만, 이 조직은 산업사회의 수작업 형태에 바탕된 조직이지 새로운 정보화시대에 적합한 조직은 될 수 없습니다.

특히 <표2>와 같이 행정직은 6급, 사서직은 7급이 정점을 이루어 핵심적인 업무 수행자로 형성되어 있고, 전체직원 대비 5급 이상의 구성비율도 행정직은 35%인 반면 사서직은 5.8%가 배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막혀 있는 실정입니다. 이 현상은 정보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전체구성원에 대한 사기진작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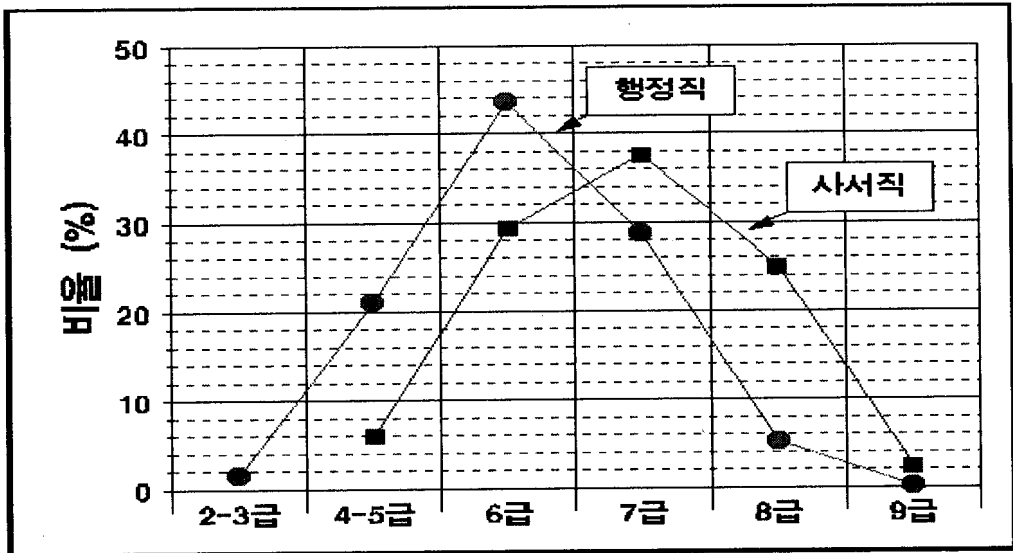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 협의회는 <표1>의 행정직 구성비율, 즉 2~3급(1.5%), 4~5급(21%), 6급(43.5%), 7급(28.7%), 8급(5.3%)과 같이 사서직의 구성비율을 조정하여 주시고, 이를 지역센터대학인 강원대학교, 경상대학교, 서울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에 적의 배치하여 주시고, 기타 국립대학교, 산업대학교 및 교육대학교 등에도 5급직을 적의 배치하여 책임성 있는 업무수행의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표1> 직급별 정원 및 비율

구 분	계		2~3급		4~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정원	비율	
행정직	2,041	100	30	1.5	429	21.0	889	43.5	586	28.7	106	5.2	1	0.1	
사서직	564	100	0	0	33	5.8	165	29.3	212	37.6	141	25.0	13	2.3	

※ 관보 제14442호(2000년 2월 28일) p.25-27 참조.

<표2> 직급별 정원 분포도



2. 사서직 총원

우리 나라 국립대학교 도서관은 <표3>에서 보여지듯이 1992~2000년까지 장서가 10.65%, 이용대상자가 14.75%씩 매년 증가하여 평균 2배의 성장을 가져왔으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서직은 지속적으로 증원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조 조정·공무원 증원동결 등의 이유로 <표6> 및 <표7>과 같이 업무량에 역 비례하여 매년 2.74%씩 감원되어 <표4>의 외국대학교 도서관과 비교하여 산출된 <표5>에서 보여지듯이 사서직 1인당 장서는 2배(212%), 이용대상자는 10배(1,066%)의 업무량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고학력자인 고급인력을 도서대출과 서가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에 투입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이 약화되거나 지연되면서 이용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다양한 지식정보화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만족 할만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문적·창의적이면서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합한 젊은 세대의 사서가 필요하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

서수와 이용자 수에 대비한 사서인력의 증원, 즉 외국대학교 도서관의 사례와 같이 장서 15,000권 당 사서직 1명, 또는 이용대상자 80명 당 사서직 1명이 필요함으로 이를 건의합니다.

<표3> 국립대학교 도서관장서·이용자·사서직 현황표

구 분	장 서 수		이용대상자수		사 서 수		비 고
	계	증·감률	계	증·감률	계	증·감률	
1992년	6,901,792	0	243,549	0	829	0	
2000년	12,780,524	185.2	529,865	218.0	647	▽21.95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은 제외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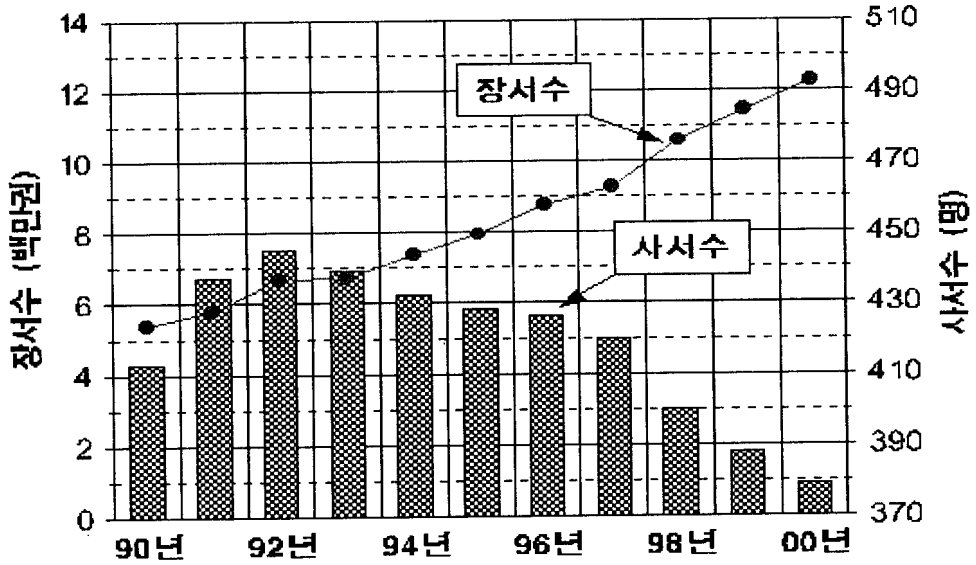
<표4> 외국대학교 도서관장서·이용·사서직 현황표

구 분	워싱턴	피츠버그	펜실베니아	세필드	동경	나고야	평 균
장 서 수	3,482,986	4,148,792	4,900,000	1,300,000	7,900,000	2,647,000	4,063,130
이용자수	11,561	26,182	17,718	21,510	26,997	16,579	20,091
사서직수	284	389	401	170	239	113	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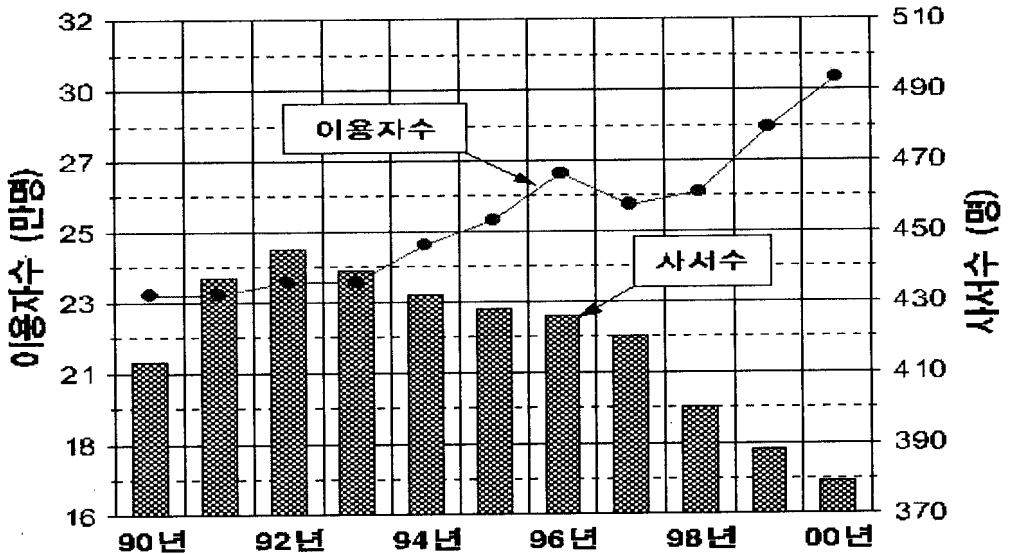
<표5> 국립대학교와 외국대학교의 도서관장서·이용자·사서직 비교표

구분	장서수	이용자수	사서직수	사서1인당		비고
				장서수	이용자수	
한국	680,000	17,000	21	32,380	810	
외국	4,063,130	20,091	266	15,275	76	

<표6> 장서수 대비 사서수 분포도



<표7> 이용자 수 대비 사서수 분포도



3. 국비 도서비 증액

<표8>에서와 같이 지난 10년간(IMF 기간 제외) 국립대학 예산은 매년 20% 정도(평균증가율: 12.4%)로 증액되었으나, 도서비는 평균 7.7% 정도의 증액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대학예산 대비 도서비의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상태로서, 이러한 상황으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의 근간인 지식콘텐츠의 확충은 고사하고 오히려 필수적인 학술정보자료가 고갈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보화 사회의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문화선진국이 되어야 하며,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지식정보망의 중심을 당연히 대학도서관이 책임질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의 달성에는 무엇보다 학술정보자료의 구입비가 지속적으로 증액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대학교 전체예산의 3% 이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8> 연도별 대학 전체예산 및 국비 도서비 현황표

(단위: 억원, %)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연평균
구분	연도												
전체	예산액	3,099	3,705	4,309	4,324	5,179	6,611	8,087	8,777	8,768	10,625	9,345	6,621
	증 감	0	606	604	15	85	1,432	1,476	690	9	1,857	▽1,280	626
	증감률	0	19.6	16.3	0.4	19.8	27.7	22.3	8.5	0.1	21.2	12.0	12.4
도서비	예산액	41	45	36	42	63	59	68	62	72	58	72	56
	증 감	0	4	▽9	6	21	▽4	9	▽6	10	▽14	14	3.1
	증감률	0	9.8	▽20	16.7	50.0	▽6.3	15.2	▽8.8	16.1	▽19.4	24.1	7.7
백분율		1.3	1.2	0.8	1.0	1.2	0.9	0.8	0.7	0.8	0.6	0.8	0.8

※ 18개교(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대, 군산대, 목포대, 부산대, 부경대, 서울대, 순천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예산 합산 자료임.

4. 도서관업무 전담 부서 설치

대학도서관은 대학의 교육연구 및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하는 중추시설로 대학교육의 핵심적 요체이며 연구기반의 기본적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도서관 기능의 활성화가 없는 연구기반조성·대학발전 등의 기대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특히 컴퓨터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도서관의 봉사환경이 급변한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더욱 도서관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는 대학으로서는 도서관의 기능활성화가 더욱 절실하게 요망됩니다.

이제 도서관육성은 대학발전과 직결되어 있고 많은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수반되는 등 국가차원의 제도적 지원 없이는 실현키 어려운 미래 지향적 교육투자입니다. 창의적인 지식기반의 원천은 대학이고 대학교육의 내용과 질은 국가의 장래를 예견할 수 있는 척도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어떻게 지식을 창출하고 공유하며 얼마나 잘 응용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크게 좌우되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정보공유체제를 확립하고 도서관에 관한 종합적인 발전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을 맡고있는 교육인적자원부내에 도서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